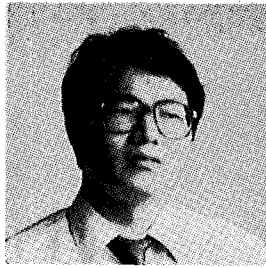


조사료로 소를 배부르게 해주자



한일사료 마케팅부
차장 정 부 진

우리나라 축우산업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위 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으로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허약한 우리 실정에서 근년에 들어서는 인건비등 생산비의 폭등이 가속되는 가운데 개방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축우사료의 문제점을 들추고 그 대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는 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소는 원래 대자연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던 동물이다.

따라서 소의 소화기관은 풀(조사료)을 먹고 소화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류가 고기와 우유를 많이 필요로 하면서 곡류등 농후사료를 급여하게 되었고 여러 사양 시험에 의해서 조사료 대 농후사료의 급여비율을 60 대 40으로 급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나 우리나라는 조사료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단기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배

합사료(농후사료)를 다량 급여하는 사육방법이 관행으로 자리잡혀왔다.

이것은 배합사료를 공급해온 사료업계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농후사료를 과다 급여하도록 권장해온 우리 사료업계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양가에게 조사료 급여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소에게 농후사료를 과다급여함으로써 사양가가 입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단기간의 증체나 당장의 유량증가는 기대할 수 있으나 젖소의 경우 내용연한이 줄어들고 수태가 잘 되지 않는 등 각종 질병을 겪고있는 우리 현실의 주범이 바로 농후사료 과다급여인 것이다. 이 결과로 수의사의 할일은 많아지고 사양가는 약품, 치료비의 부담이 가중되어왔다.

조사료 급여의 중요성을 사료회사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농가에 장려해 왔다면 조사료 급여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젖소는 현재보다 내용연한이 1~2년은 연장되었을 것이고 연간 산유량도 1,000~2,000kg정도는 높아졌을 것이며 특히 고능력우의 조기도태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비육우에 있어서도 비육후기 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해 출하체중을 높일 수 없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도 없었을 것이다.

소는 배가 불러야 한다.

소의(성우)의 반추위는 180~200ℓ로 복강의 60%를 차지한다. 최대의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양가의 입장에서는 이 반추위는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들은 반추위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100kg이상의 백두급 장사에게 쇠고기 몇점과 계란후라이 한개를 식사로 제공한다면 이 장사는 허기로 인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들이 바로 이런 지경을 겪고 있다. 조사료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구입이 용이한 배합사료를 지나치게 줄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축우 사양가 입장에서 별 도리가 없었겠지만 그에따른 손해는 사양가에게 돌아갔다.

배합사료를 많이 주게 되면 소는 영양적으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총섭취량은 줄어들게 된다. 또 조사료를 많이 급여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않는 것이라면 적은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소는 배가 고플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소화·이용이 잘되는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질의 조사료를 실컷 먹고사는 축산 선진국의 소처럼 우리나라 소에게도 그만큼 정성을 기울인다면 수익도 많아질 것임이 자명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며 지금까지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현실정에서 배합사료가 kg당 200원정도이고 조사료는 100~300원이지만 조사료의 구입가격이 500원에 이르더라도 일정량은 구입해서 젓

소에게 급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비육우에 있어서도 이제 쇠고기 차등가격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사료에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노력과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든다해도 소에게는 적당량 조사료가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리면 조사료는 얼마든지 있다.

알팔과큐브, 먼실, 비트펠프, 우리나라 모든 소들이 먹고 남은 만큼의 볏짚, 그리고 초지와 작물포에서 나오는 목초와 사료작물등 여기에 또 우리는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야산이나 심지어 논과 밭을 이용하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축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는 관점에서 주곡생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축우산업이 국민경제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좁은 국토나마 생산성 위주의 비교우위론이 적용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양가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료회사는 이에 걸맞는 사료를 개발·공급해야 할 것이다.

또 거의 모든 사료회사에서 행하는 수의서비스를 치료수의에서 예방수의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사양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축우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목장을 처분하는 농가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목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우산업은 국민의 생존과 함께 영원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방향제시를, 사료회사에서는 좋은 사료공급과 올바른 사양관리에 대한 지도·계몽을 그리고 소를 키우는 분들은 축산을 천직(天職)으로 여기는 자세로 임할때 우리의 축우 산업은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고 확실한다.

비운 후의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